# 우리나라 고대사 揆園史話 ㉜

(규원사화)

▣ 一沙 權 正 孝
(한국인재개발원 회장·애국운동연합고문 옮김)

(지난호에 이어서)

余嘗論之, 强國之要, 有三. 一曰[地廣而物博], 二曰[人衆而合], 三曰[恒守其性而不失其長]. 此所謂地利 人和及[保性也. 而朝鮮則, 得地利而不全, 失人和]而亡其性, 此萬世之患也. 何謂得地利而不全. 夫朝鮮(之)地, 北連大荒, 則凍天氷地斷我後退之路; 西接蒙古, 而萬里流沙斷我左展之臂. 西南隣漢土, 而無泰岳峻峙 長江大河之限, 則其勢易於進攻, 難於防守. 東南阻大海, 而無前進一步之土. 且漢人者, 盤據萬里金湯之地, 容百族以爲衆, 蓄布粟以爲富, 鍊百萬之師而以爲强, 則恒涉野跨海, 以侵西鄙. 時有 强桀 者, 蹶起於北方, 則爲後顧之慮, 必來 攻. 倭, 海洋萬里, 各據島嶼, 有事則以易自保, 無事則順風駕帆, 任志來寇, 譬如床下 之恒致其苦. 若我常强而無衰, 則可抑漢土而郡其地, 斥倭寇而鎖其海, 可號令天下, 囊括宇內也. 若我勢一弱, 則敵騎長驅, 蹂 躪國, 虜掠吏民, 焚燒閭里. 此, 所謂得地利而不全者也.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강한 나라의 요건에는 세가지가 있다 하였다. 그 첫번째가 땅이 넓고 산물이 풍부한 것이고, 그 두번째가 사람이 많으면서 화합하는 것이며, 세번째는 항상 그 본바탕을 지키며 자기의 장점을 잊지 않는 것인데, 이는 지리적 이익과 사람의 화합 및 본바탕의 보전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은 지리적인 이익을 얻었으나 온전한 것이 못 되며, 사람들은 화합을 잃은 데다 본 바탕을 망각하고 있으니, 이것은 만세에 걸친 근심이라 할 것이다. 지리적인 이익을 얻었으나 온전한 것이 못된다 함은 무엇을 말함인가? 무릇 조선의 땅은 북으로 대황(大荒)과 연결되어 있으니 곧 얼어붙은 하늘과 빙판 같은 땅이 우리의 퇴로를 끊고 있고, 서쪽으로는 몽고와 접하니 만리에 뻗친 사막이 우리의 왼쪽으로 뻗은 팔뚝을 끊고 있으며, 서남으로는 한나라 땅과 인접하여 있으나 태산의 험준함이나 장강의 큰 물줄기 같은 경계가 없기에 곧 그 형세가 나아가 공격하기는 쉬우나 지켜 방어하기는 어렵고, 동남으로는 큰 바다에 가로막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땅이다.

한나라 사람들은 만리에 뻗친 철옹성 같은 땅에 자리잡고 살면서 수많은 종족을 포용하여 이들로 그 무리를 삼고, 베와 곡식을 축적하고 1백만의 군대를 훈련시켜 이로서 부강함을 삼으며, 항상 들을 건너고 바다를 뛰어 넘어 그로서 서쪽의 천한 종족들을 침략하였다. 때때로 뛰어나게 강인하고도 굳세어 굴하지 않는 자가 나타나 북방에서 떨치고 일어나면 곧 뒷날의 우환을 염려하여 반드시 와서 으르고 공격하였다. 왜(倭)는 바다 1만리의 크고 작은 섬에 제각기 살면서 유사시에는 쉽사리 스스로를 보호하다가 무사하면 곧 순풍에 배를 몰아 마음대로 와서 노략질을 하니, 마치 마루 아래의 등에가 항상 골치인 것과 같다.

만약 우리가 항상 강하여 쇠퇴함이 없으면 곧 한나라 선비들을 눌러 그 땅에 군림하고 왜구를 배척하여 그 바다를 봉쇄할 것이니, 가히 천하를 호령하며 세상을 주머니 속에 넣고 주무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의 기세가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곧 바로 적의 병사가 멀리로부터 말을 몰고 와서 온 나라를 유린하고 백성들을 노략질하며 고을을 불사를 것이니, 이것이 소위 지리적인 이익은 얻었으나 온전한 것이 못되는 바이다.

昔者, 蚩尤氏卽帝位於 鹿, 屹達陳兵於 .岐, 藍侯建四侯於殷地, 奄薄姑王誘三監而唆武庚, 幾撓周室, 徐偃王抑宗周而王潢池之東朝三十六國. 後世, 遼 金 淸者, 皆起於舊朝鮮[地]而有中原. 高句麗之方盛也, 强兵百萬, 南擊吳.越, 北挑幽燕齊.魯, 恒虎威於漢方. 百濟則跨渤海而略遼西 晉平, 越草海而占越州. 新羅[則]鯨濤萬里, 陳雄兵於明石, 刑白馬而盟赤關. 此皆, 我强而易於攻彼, 是得地利也.

옛날에 치우씨는 탁록에서 제위에 올랐고, 흘달 임금은 빈·기에 병사를 주둔시켰으며, 남후는 은나라 땅에 네 제후를 세웠고, 엄박고왕(奄薄姑王)은 삼감(三監)을 꾀고 무경(武庚)을 부추켜 주나라 왕실을 거의 휘어잡았으며, 서언왕(徐偃王)은 종주(宗周)를 누르고 황지(潢池)의 동쪽을 다스려 서른 여섯 나라로부터 조회를 받았다. 그 뒤에 요(遼)와 금(金) 및 청(淸) 등이 모두 옛 조선의 땅에서 일어나 중원 땅을 차지하였으며,

고구려가 막 번성하려고 할 때에는 강병이 1백만으로서 남방의 오와 월을 치고 북방의 유연(幽燕) 및 제.노(齊.魯)등과 싸움을 일으키는 등 항상 한나라 땅에 위엄을 세웠다. 백제는 발해를 뛰어넘어 요서와 진평을 공략하였고 초해를 건너 월주를 점령하였다. 신라는 1만리 길의 거대한 파도를 넘어 명석(明石)에 뛰어난 병사들을 주둔시키고 백마를 잡아 적관(赤關)의 맹세를 받았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우리가 강하면 저들을 공략하기 쉬운 것이니 이것이 지리적인 이익이다.

若夫檀氏之世, 有兪之寇, 列國之時, 箕氏蒙東胡之侵, 丸都焚蕩, 后妃被虜, 平壤敗沒, 而公侯世族及士民之被掠者二十八萬. 黃山將殞, 泗[ ]( )城陷, 白馬江頭, 胡馬爭嘶, 落花岩畔, 芳魂亂飄. 忽汗之滅, 而渤海之民放散四處, 雖謀復圖興, 數百餘年而終致其殘滅. 夫勝朝以後累百年間事, 誰肯 顔而過問哉! 降至壬辰之役而八域魚肉, 丙子之禍而州里蕭然! 今世之人, 溺於虛文, 閒於衰弱, 棄其道而咀宋儒之餘唾, 貶其君而比外邦之臣僕. 盖, 歷觀近世之往事, 傍察今代之趨勢, 舍大猷而謀小(欲)[慾], 擲公戰而圖私益, 公(宣而)[室以]循其家, 漁細民以肥其腹, 而以區區零之事, 然醉中談夢 蝸角爭勝; 滔滔之勢, 日下而不振, 已無我力而謀賴於人, 此勢已孤弱而併亡其本性也. 後世若有强者, 代淸而興則, 必脅其主而誘其臣, 郡其地而隸其民矣. 今日之所以, 溺於安逸而茫然無爲者, 豈非後日, 呼飢寒之因耶? 余之所謂, 不出數百年而必爲强 所敗者, 豈矯激之語耶? 噫!

무릇 단군의 치세 때는 설유의 노략질이 있었고, 열국시대에는 기씨(箕氏)가 동호의 침략을 입어 환도성이 깡그리 불타고 후비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며, 평양이 패망하여 몰락하니 공후(公候)와 세족(世族) 및 선비와 백성 등을 노략질해 간 숫자만 28만이었다. 황산벌에서 장군이 운명하고 사비성이 함락되자 백마강 머리에서 오랑캐 말들이 다투어 울고 낙화암의 물가에는 꽃다운 넋들이 어지러이 떨어졌으며, 홀한(忽汗)의 멸망으로 발해의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비록 부흥을 도모하기를 수백여 년이었으나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여 멸망하기에 이르렀다.

무릇 고려조 이후 수백년 간의 일을 그 누가 기꺼이 나서서 얼굴을 붉히며 물어오겠는가? 아래로 임진왜란의 어려움에 이르러서는 팔도가 진창이 되었으며, 병자호란의 재앙을 만나서는 고을들이 쓸쓸하였다. 더욱이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헛된 글에 빠져 하릴없이 쇠약해지고, 자신의 도는 버리고 송나라 유생이 뱉은 침을 곱씹으며, 자신들의 임금을 깎아 말하여 외국 신하의 몸종에 비기고 있다.

대저 근세의 지난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지금 세대의 추세를 그 곁에서 관찰해 보면, 큰 계책은 버리고 작은 욕심만을 꾀하며, 공동을 위한 싸움은 내팽개치고 사사로운 이익만을 도모하며, 조정을 좀먹어 이로 가문을 다독거리며, 가난한 백성들을 약탈하여 자신들의 배를 살찌우며, 자질구레한 일들을 가져다 희믈그레한 눈매로 취중에 꿈 얘기하듯 하면서 쓸데없는 승부나 다투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 역사기행

# 이재(彛齋) 권돈인(權敦仁)과 세검정(洗劍亭)이야기

▣ 향촌 권 오 창 (본원 자문위원)

세검정은 북한산 둘레길이 연결된 길목에 있으며 경복궁 뒤쪽 창의문 밖에 있는 정자이다.

이 정자는 1748년(영조24년)에 창건되였다. 1623년 인조반정때에 이귀(李貴) 김유(金瑬)등이 창의문 밖에서 군사를 일으켜 광해군을 패하여 강화도로 유배시키는데 큰역활을 하였고 서궁에 유폐되어있던 인목대비는 대보를 받들어 능양군에게 전하면서 '능양군은 선왕의 뜻을 받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 고 말하였다.

이렇게하여 능양군이 왕위에 오른다. 이가 바로 인조이다. 이러한 과정이 있기 전에 사전 반정모이를 주동하던자들이 세검정앞 흐르는 냇물에 칼을 씻어 결행맹세를 하였다는데서 세검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였다.

정자는 6각정으로 숙종때에 북한산성을 수축하면서 축성작업을 하던 병졸들의 쉼터와 놀이터로 세운것이라고도 하고 혹은 연산군이 유흥을 위하여 세운 것이라는 설도 있다.

이귀는 이이(李珥)성훈(成훈)의 문인으로 임진왜란때에도체찰사(都体察使)류성룡(柳成龍)의 종사관으로 삼도소모관(三道召募官)직에 있었던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우마와 군량미를 확보하는데 사역한바 있었다.

그는 선조36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좌랑 양재도찰방 함흥 판관직을 지냈고 한 때에 이천(伊川)에 유배 되였으나 김유 등과 인조반정에 성공하여 1등공신에 책록되였고 연평부원군에 봉해졌다.

인조4년에는 호위대장이 되어 남한산성을 수축하였고 호패법을 시행하는데 큰 공적을 세웠다.

그러나 인조반정 공신 논공행상의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임진강에서 이를 물리치지 못하고 패하자 탄핵을 받고 사직하였다.

인조4년 정묘호란때에는 왕을 모시고 강화도로 가서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화의를 주장하다가 탄핵을 받았다.

김유는 선조29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검열 강계부사를 지냈고 명(明)에 동지사로 갔다왔다.

이괄의 난때에는 왕을 모시고 충청도 공주(公州)까지 남행하였다. 돌아와서는 우의정을 거쳐 영의정이 되었다. 병자호란때에는 최명길 등과 화의를 주장하였으나 관직을 삭탈 당하였다.

다시 세검정이야기로 돌아가자. 세검정 지역은 인조반정의 군사이동경로의 요충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궐북쪽의 창의문으로 가는 통과 길목이다.

이귀 김유 김자점 최명길 이괄등이 사전 거사일을 모의하여 장단으로 부터는 이서의 군사가 이천에서는 이중로의 군사가 홍제원에서 김유의 군사가 합류하여 이미 대궐안의 훈련대장 이흥림의 내통으로 창의문을 통과하여 대궐에 쇄도함으로써 반정을 성공시킨다.

창의문은 4대 소문중에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문이다. 1395년 축성할때에 건립되였고 북한산 양주방면으로 왕래하는 문이였다. 문누상에는 인조반정 공신 명단이 게시되여 있다.

다음은 세검정에 얽힌 이재 권도인(1783년정조7년~1859년철종10년) 공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공은 순조 12년에 급제하였고 그 후 청(淸)에 동지사 서장관으로 다녀왔다. 그는 경상도 관찰사 호조판서 우의정 좌의정를 거쳐 영의정까지 올랐으나 철종10년 연산(連山)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다.

공은 40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번 과거시험을 보았으나 번번이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초야에 묻혀 살기로 결심하고 끝으로 한양을 등지기 전에 추사 김정희를 찾아가서 작별인사나 나누기로 하였다.

추사와는 당시 절친한 친구사이였다.

추사는 일찍이 1819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성를 거쳐 이조참판까지 이르렀다. 그가 24세때에는 그의 부친을 따라 청(淸)에가서 북경의 유력한 유학자들과 교류하여 새로운 학문에 접하고 시대흐름에 앞서가는 선각자였다,

이재 권돈인공은 실의에 빠져 추사 김정희를 만나 낙향의 뜻을 밝히니 추사는 진정으로 극구 만류하고 이재공의 재질을 칭찬하면서 나라의 큰 인재가 되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게 된다.

추사는 등과의 한 가지 방법을 알려 줄터이니 '내가 하라는 데로하게' 하고 헤어졌다.

추사와 약속한 어느 날에 이재공은 세검정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서 북한산을 향하여 길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그 때에 세검정에서 추사가 이재공을 알아보고 정자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재공을 큰소리로 불으면서 어디가느냐고 물었다.

추사는 반가워하며 이재공을 정자자리에 까지 데리고 왔다. 그곳에는 시회(詩會)가 개최되는 자리인데 추사는 이재공을 절친한 친구로서 소개하면서 이재공의 인성과 재주를 칭찬하고 나라 일을 하기 위하여 큰 뜻을 품고 있으나 등과를 못하고 여러번 낙방하여 그 뜻을 접고 이제 북한산에 있는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되고자 한다는 사연을 좌중에 알렸다.

그 정자에는 영안부원군 김조순 영의정 김재찬 병조판서 이상황 등이 있었으며 당대의 고명한 시인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김조순은 후일 안동 김씨 세도정치의 기반을 닦은 분이기도 하다.

이 말을 듣던 김조순이 이재공을 진심으로 위로하면서 포기하지말고 아직 젊었으니 다시 도전하여 보라고 격려하였다. 술잔을 권하면서 추사와 더불어 여기에 앉아서 시를 지으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번 양화도에서 시화가 개최되니 그곳까지 참석하도록 초청하였다.

과연 그 날 이재공의 문장과 작시실력은 막강한 권세가의 자리에서 여지없이 발휘되였다. 그리하여 이재공의 인물됨과 문필에 김조순은 크게 감탄하였다. 그 해 겨울에 시행된 황감별시에 이재공은 당당히 급제하였다. 그 후 이재공은 고속승진하여 많은 치적을 남기고 영의정까지 올랐다. 이재공의 막역한 친구였던 추사 김정희의 또 다른 일면을 보면 그는 당대 학문연구에 있어서는 실사구시를 주장하였고 훈고로써 실천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명필을 연구하여 독창적인 추사체를 개척하여 청(淸)에까지 알려져서 높이 평가되었으며 그림에 있어서는 대나무와 난초 산수화를 잘 그렸다. 또한 그는 북한산 비봉의 신라 진흥왕 순수비를 고증한 금속학자이기도 하다.

이재 권돈인과 추사 김정희의 사이에 세검정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우정은 오늘날까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끝)

##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7월24일 현재)

▣ 총재단회비

| | |
|---|---|
| △권길상(부총재) | 1백만원 |
| △권영선(부총재) | 1백만원 |
| △권봉도(부총재) | 1백만원 |
| △권영한(부총재) | 1백만원 |
| △권무탁(부총재) | 1백만원 |
| 소 계 | 5백만원 |

▣ 종무위원회비

| | |
|---|---|
| △권정택(고양, 대종원) | 20만원 |
| △권오종(서울, 대종원) | 20만원 |
| △권기갑(이천) | 20만원 |
| 소 계 | 60만원 |

▣ 대의원회비

| | |
|---|---|
| △권경환(영천, 별장공파) | 10만원 |
| △권오창(원주, 대종원) | 10만원 |
| △권오창(퇴촌, 대종원) | 10만원 |
| △권희홍(대전, 대종원) | 10만원 |
| 소 계 | 40만원 |

**합 계 600만원**

제1화

# 표리부동한 황제의 모습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 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사람이 살면서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그대로 밖에 들어내 놓기는 힘들다. 특히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의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다른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속마음과 겉으로의 행동이 심한 차이가 난다면 이를 표리부동(表裏不同)하다고 하여 상대하기 어렵다. 그런 사람을 믿고 일을 같이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래 일을 같이하다 보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표리부동함이 드러나게 되어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속을 숨기려고 하여도 숨겨지지 않는 것 또한 인간사이다. 어쨌거나 역사에서 표리부동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남조(南朝) 제(齊)나라의 울림왕(鬱林王) 소소업(蕭昭業)일 것이다. 황제에 올랐던 사람이니 당연히 황제의 시호가 있어야 하지만 등극하고 얼마 후에 쫓겨나서 폐제(廢帝)가 되었으니 황제의 시호도 받지 못하여 그저 울림왕으로 불린다.

울림왕 소소업은 제(齊)의 두 번째 황제인 무제(武帝) 소색(蕭賾)의 손자이다. 원래 소색은 아들 소장무(蕭長懋)를 태자로 삼았다. 그리고 태자 소장무의 아들이 소소업이었다. 정상적으로 된다면 소색 다음으로는 소장무가 황제를 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소소업이 황제의 자리를 이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소업은 할아버지 소색에게 잘 보여야 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할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하였다. 할아버지 앞에서는 성품이 분명하고 지혜로웠으며 용모와 거동이 아름다웠고 대응을 잘하며 슬퍼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행동하였다. 이로 인하여 할아버지 소색은 손자 소소업을 몹시 아끼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본래 모습을 숨긴 행동이었다. 늘 감정을 숨기고 거짓을 수식하며 몰래 비루하고 사악한 생각을 품었으며 주위에 있는 여러 소인배와 의식(衣食)을 함께 하고 눕고 일어나기를 같이 하였다. 제왕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그의 아버지 소장무가 알고서 그의 행동거지를 금하고 그의 용도(用度)를 조절하였다. 아들의 행동을 고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로부터 돈 쓰는 것을 제한 받자 몰래 부자들에게 가서 돈을 요구하였다. 소소업이 황제의 손자이고, 황태자의 아들인 까닭에 돈을 요구 받으면 안 줄 수가 없었다. 이 돈으로 따로 자물쇠와 열쇠를 만들어서 밤에 서주(西州)의 뒷편 협문을 열고서 주위의 사람들과 여러 영서(營署, 군영과 관서)에 가서 음탕하게 연회를 열었다.

그뿐 아니었다. 황태자인 그의 아버지 소장무가 병들어 앓자 겉으로는 근심스런 얼굴을 하면서 울부짖으며 쓰러지니 보는 사람이 울어서 목이 메게 하였지만 사택으로 돌아와서는 즉시 기뻐하고 웃으며 술을 마셨다. 그리고 무당을 시켜서 아버지가 빨리 죽도록 기도하며 빌도록 하였다. 그 아버지가 죽자 그는 드디어 황태손이 되었다.

황태손이 되고 나서 할아버지인 무제 소색이 병이 들었고 점점 위독해 지자 자기 처인 하비(何妃)에게 희(喜, 기쁘다.)'라는 글자를 가운데에다 크게 써 놓고 그 주변에 다시 희(喜)자를 36개서 써서 보냈다. 아마도 곧 할아버지가 죽을 것 같으니 자기가 황제가 될 것이므로 기쁘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 것도 모르는 할아버지 소색은 죽으면서 뒷일을 소소업에게 부탁한다.

드디어 소색이 죽고 대렴(大斂)이 처음에 끝나자마자 황제에 오른 그는 할아버지의 여러 가창기녀들을 불러서 여러 음악을 준비하고 연주하도록 하였다. 또 할아버지 재궁(梓宮)이 내려가자 황제가 된 소소업은 바로 작별하고서 갑자기 병이 났다고 하면서 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합문(閤門) 안에서는 바로 음악을 연주하는 소리가 안팎을 울리며 퍼져 나갔다.

물론 소소업은 황제의 자리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쫓겨났다. 황제가 된 다음에는 비루한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기에 쫓겨난 것이다. 표리부동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영원히 감추어질 수 없었다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別世

# 權寧贊 前 樞密公派 會長 別世

국내 행정학 권위자인 호는 진고(眞古) 권영찬(權寧贊) 전 추밀공파대종회장이 13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7세. 경기 파주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행정학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과 건국대 제9대와 10대 총장을 연임했다. 6·25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며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다. 8권의 저서가 발간되고 논문과 연구보고서 50여권이 있다. 1993년 추밀공파대종회장을 맡으면서 추밀공,충헌공단소 설단을 추진하였다.

유족은 부인 송종숙씨와 아들 권오신(개인사업)·권오현(국제해양기술 대표이사)·권오준(대한항공 상무)씨와 사위 노영록(법무법인 세광 대표변호사)씨 등이 있다.

### 안동권씨 추밀공파조 단소 설단

- 1994년2월7일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산177번지에 설단지를 정하고 2월 12일 화산부원군 종중(회장 권이현)에서 회의를 열고 설단의 부지제공을 결의하여 추진위원회에 통보했다.

- 2월 19일 권영찬 대종 회장 및 임원진이 고유제를 봉행하고 5월26일 추진위원회 임원들과 임원진이 樞密公 忠憲公의 단소를 입설키로 결의하고 신도비는 대전 참의공종중에서 전담 헌성키로 하다.

- 12월2일 추밀공신도비문(樞密公神道碑文)은 대전의 이성도(李聖道), 추밀공단비음기(樞密公壇碑陰記)는 권중달중앙대교수(權重達) 추밀공행장(樞密公 行狀)은 권달안(權達顔)제5대중앙종친회장이 지었다.

- 1995년10월2일 설단의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화산부원군 종회장 권이현 상임부위원장과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하고 12월20일 추밀공·충헌공 및 화산부원군 묘역 공사가 완료됐고 1996년8월30일 추밀공신도비 건립을 완료하다.

〈화산부원군 종회장 권정택〉